



# ‘이별의 광주역’, ‘무등산 처녀’... 80년대부터 총장로·금남로 등장



‘무등산 걸린 달아 구비치는 관천교야 호남열차 객장으로 바라보니 반갑구나’(윤일로 ‘광주야극’ 중)

대중가요 속에 등장하는 광주의 모습은 어떨까. 또 광주를 소재로 한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중가요 곡수는 90만여곡. 그 중 광주를 다룬 대중가요는 70~80여곡 뿐이다. 이 곡들에는 주로 무등산 수박, 광주역, 지산동 딸기밭 등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최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별관에서 제4회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를 노래한 대중음악인들’이 열렸다. 이날 주광 한국방송DJ협회 기획이사가 대중가요 속에서 묻어나는 광주의 옛 정취와 노랫말 속에 담긴 도시 발전상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음악인들이 느꼈던 광주에 대한 색다른 의미를 전했다.

당시 제작된 음반 사진, 신문기사와 함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번 콜로키움은 마치 옛날로 떠나는 ‘타임머신’ 같았다.

옛가요 연구모임 ‘유정천리’와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주 기획이사는 이번에 광주를 노래한 대중가요 18곡을 공개했다.

주 기획이사는 “한국 가요사에 가수 이만영이 부

## ‘광주를 노래한 대중음악인들’ 강연 음악인들이 느꼈던 광주 의미 전해 황금심·인순이·주병선 등 조명 90만 가요 중 광주 다룬 곡 80여곡

른 ‘목포의 눈물’과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안정애의 ‘대전블루스’,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등 지명을 넣어서 사랑받는 히트곡들이 많이 있지만 대중가요 속 광주는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라며 “우리 도시를 노래한 음악인들은 누가 있었고, 가요 속 광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강연의 의의를 설명했다.

주 이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는 광주에 관한 노래가 거의 없었다. 광주를 주제로 한 가요는 광주 인구가 급등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남성봉의 ‘서울행 삼등실’(1959)과 윤일로의 ‘광주야극’(1959) 등이 있다.

이후 1960년대부터 ‘이별의 광주역’(1961), ‘남도 신 아리랑’(1961), ‘무등산 아가씨’(1962), ‘무등산 처녀’(1964), ‘광주역의 밤비’(1966), ‘호남 나그네’(1967), ‘광주 에레지’(1967) 등이 불리기 시작했다.

황금심이 부른 ‘무등산 처녀’ 가사를 보면 ‘무등산 딸기밭에 딸기따는 저 처녀야 나오는데 이를 통해 무등산에 딸기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남도 신 아리랑’에는 1970년대까지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은 무등산 산장호텔이 등장한다. ‘무등산 화전밭은 어데가고 멋쟁이 아가씨만 남나드느냐 신식 호텔이 생겼다네’에서 ‘신식 호텔’이 바로 무등산 산장호텔이다.

이후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에는 광주를 노래한 가요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1980년대부터는 총장로, 금남로를 소재로 한 곡이 나온다.

1984년 이장순이 발표한 ‘총장로의 밤’은 ‘잊지 못할 총장로의 밤 이별의 총장로의 밤’이라는 가사

를 통해 이별을 이야기하며, 임우정의 ‘광주부루스’(1989)에는 ‘무등산 기슭’과 ‘총장로 거리’가 나온다. 이후에 나온 곡들을 살펴보면 ‘무등산 에레지’(1989), ‘들꽃처럼’(1995) 등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곡들이 발표된다.

그중 가장 눈의 뿔건 김우정의 ‘광주 부루스’(1989). 이 곡은 작곡가 박춘석이 죽은 양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곡이다. KITV에서 방영된 ‘광주를 말한다’ 배경음악으로 나가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박 씨는 망월동 묘역에서 뿔뿔인 꽃망울로 떨어뜨린 5·18 희생자들을 보고는 자식과 형제를 잃은 광주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했고, 이 곡을 만들었다. 광주 출신 신인가수였던 김우정이 불러 더욱 화제가 됐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Ma City’(2015)를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주 기획이사는 “광주 소재 노래를 찾는데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며 “5·18에 매몰돼 아픔을 재생산 하는 곡들이 많아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곡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광주도시재생사업 등에 광주노래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 ACC오픈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감성 깃든 달력 만들기, 스토리텔링 실습, 나만의 예술작품 만들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ACC 오픈 아카데미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먼저 11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하는 ‘쪽모이 달력’은 자신만의 감성이 깃든 달력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50세 이상 장년층이 대상이며 복고적 감성을 지닌 리소그래프(RISOGRAPH)를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

‘50+ 코딩클럽: 오손도손 내 인생 첫 코딩아트’는 스마트폰으로 코딩 개념을 익히고 나만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는 기회다. 50세 이상을 포함한 가족 5팀을 대상으로 20~21일, 27~28일 진행한다.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프로그램도 있다. ‘세상을 담은 상상의 시작’에선 이야기 연구, 분석, 구성 및 줄거리 작성뿐 아니라 대본 집필 과정부터 분야별 스토리텔링을 배울 수 있다. 영화와 드라마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11·18·25일 진행된다.

올해 첫 신설된 ‘스토리 인서트’는 광주 특정 장소를 화면으로 담은 영상 콘텐츠다. 상상을 더해 익숙한 공간을 낯설게 보는 묘미가 있다. 광주극장 등 특정 장소들을 선정해 시민이 소개하는 모음집 방식이며, ACC 채널에 소개된다.

참가 희망자는 ACC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무료 운영. /박성천 기자 skypark@



## 猫情 묘정

## 허달용 개인전, 13일까지 예술공간 집 고양이·풍경화...안온한 기운 담아

작은 새 한마리를 노려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 잠깐만 방심하면 곧바로 낚아챌 기세다. 새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 검은 고양이 한마리다. 또 다른 그림에선 세상 편하게 잠을 자는, 한 없이 여유로운 모습이다. 푸른 색 배경 아래 하늘에 높이 뜬 그믐달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모습에선 고양이의 ‘꿈’도 느껴진다. 먹의 농담과 여백의 미, 수묵화가 갖고 있는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작품들은 ‘고양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한다.

허달용 작가가 ‘고양이’를 소재로 한 신작을 중심으로 ‘예술공간 집’에서 전시회를 연다. 오는 13일까지 ‘묘정(貓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50점의 고양이 그림과 풍경화 등 100여점의 작품을 만나는 자리다. 무엇보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들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다.

의재 허백련의 후손으로 중학시절부터 시작해 45년여의 세월을 그림과 함께 해온 그는 민중미술의 선두에 서서 세상을 향해 외치고, 발언하는 작품을 주로 그려왔다.

그런 그가 고양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웃하는 이가 많을 터다. 활을 쓰는 작가는 올 봄 사직공원 관덕정에서 2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만났다. 초반에는 고양이에게 활귀기도 하면서 서로 경계하던 시간이 있었고 3개월이 흐르자 친밀한 동반자가 됐다. 이 과정을 사람과의 관계에 대입하게 된 작가는 고양이를 찬찬히 다시 보게 됐고, 그려가기 시작했다.

몇몇 작품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강렬하다. 작가는 흔하게 마주치는 길고양이엔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이들의 모습을 겹쳐 놓았다. 시커먼 먹 그림 한 가운데 매섭게 노려보는 고양이의 눈빛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2호 크기의 소품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들의 모습은 사랑스럽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애묘인이 아니더라도 길게 뻗은 수염을 잡아당기고 싶어지고, 보드라운 털을 만져보고 싶어진다. 또 신비로운 초록 눈을 확대해 놓은 작품이나 재롱 부리는 귀여운 얼굴은 부드러운 수묵화 특유의 정절과 어우러지면서 편안함을 준다.

전남대 예술대를 졸업한 허 작가는 20여 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 초대전에 참여했다.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 연진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도굴
2관	도굴
3관	담보
4관	도굴
5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6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9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7관 씨네커를	도굴, 소리도 없이
8관 씨네커를	미스터리트: 더 무비, 소리도 없이, 나인스 게이트: 아홉 번째 살인, 아이 빌리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GAC작가공모 전시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상자투의 길**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안집시 '상자투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연극 '정문녀'도망친 100세 노인**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정문녀'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즐거움  
**문화 산책**